

“해 넘길수도”...美 섰다운 장기화 시사

백악관 “빠른 상황 변화 없어” 트럼프는 장벽예산 크게 줄여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감축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섰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3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국장은 섰다운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말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미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상황의 빠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섰다운 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지출법안(예산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말베이니 대행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당내 진보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앞두고 '표 단속'을 하느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펠로시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좌파

에 신세를 지는 불운한 입장에 있다면서 “하원의장에 선출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예산에 57억 달러(한화 6조4천억 원)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요구에서 대폭 물러난 절충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하고 물밑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베이니 대행은 “지난 22일 적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대안을 제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 선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이 (기존의) 13억 달러에서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비용을 20억 달러까지 내린 절충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철로 된 울타리 정도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실질적인 장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요구에서도 물러섰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장벽 설치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13억 달러도 국경보안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지 장벽 설치용은 아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망자 281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 수다해협 근처 해변을 덮친 쓰나미 사망자가 281명으로 늘어났다고 AFP통신이 현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D)의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대변인은 24일 이번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81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도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다해협 주변 해안에서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9시 27분을 전후해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내륙으로 15~20m까지 해일이 밀어닥쳤다.

이번 쓰나미의 원인으로는 수다해협에 있는 작은 화산섬인 아낙 크라카타우의 분화에 영향을 받아 해저 산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 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대형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수다해협 사우스 람팡 소재 화산섬 '아낙 크라카타우'에서 23일 화산재와 증기가 치솟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아낙 크라카타우의 분화에 따른 해저 산사태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中 ‘군사굴기’ 가속...내년 항모·스텔스 핵폭격기 실전배치

급속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내년 신형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핵 폭격기 등 핵심 전략무기들을 대거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이 차세대 무기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군 현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며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증대하게 진전시킬 몇몇 핵심 무기들이 내년 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001A함이다. 2012년 실전 배치

된 첫 번째 항공모함 라오닝함과 달리 001A함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국산’ 항공모함이다. 001A함은 올해 세 차례 해상 시험 운행을 했고 내년 인민해방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항공모함은 옛 소련 시절 건조가 중단된 ‘고철 항모’를 들여와 개조해 만든 라오닝함보다 개선된 레이더와 전투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항모전단을 바닷속에서 호위할 095형 공격형 핵 추진 잠수함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095형 잠수함을 총 8척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국의 주력 핵잠수함인 093형은 소음이 커 상대에게 발각되기 쉽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095형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추정한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신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H-20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신형 폭격기는 중국의 유일한 전략 핵 폭격기인 H-6K를 대체하게 된다.

중국 항공모함 탑재기도 곧 스텔스기로 교체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2년 항공모

함 탑재용 스텔스 전투기인 FC-31을 개발했다. 이후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며 전력화가 완료되면 현재의 항모 탑재기인 J-15를 대체하게 된다.

이 밖에도 미국의 줄무트 구축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구축함으로 평가되는 055형 구축함도 내년 중국 해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184조원)이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3> 배도

배도(裴度, 765-839)의 자는 중립이며 하동 문희 출신이다. 당 헌종, 목종, 경종, 문종 때 활약했다. 삭번(削藩) 정책을 지지한 당 후기의 명재상이다.

789년 진사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하음현령을 거쳐 감찰어사가 되었다. 재상 두우에게 직언을 올렸다가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지만 기거사인으로 복귀했다. 805년 헌종이 즉위하자 중서사신, 어사중승, 사행영중군, 한림학사 등을 역임했다. 강력한 하북 3진을 중앙권력에 귀속시키는 것이 초미의 현안이었다. 812년 위박진이 조정에 귀순하였다. 815년 회서의 오원제에 대한 정벌이 시작되었다. 부친 오소성이 죽자 20년간 독자적인 통치를 해온 회서를 손볼 때가 된 것이었다. 변진 토벌에 위기감을 느낀 처형될

되어 태원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820년 헌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했다. 그는 가무와 여색을 밝히는 호색 군주로 정치는 뒷전이었다. 신책군을 장악한 환관 왕수징이 추밀사 겸 지추밀원사로 권력을 휘둘렀다. 잔소리만 하는 조경대신 보다 환관을 더 편하게 생각한 것이다. 821년 하북에서 병란이 일어나자 진압군을 이끌었다. 친구 원진이 조정에 복귀해 실제 환관 위홍간과 힘을 합쳤다. 위홍간이 원진을 재상으로 추천하자 임명안에 반대하는 상소를 세 번이나 올렸다. 이로써 양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822년 재상에 오른 원진이 배도의 병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도는 국정을 농단한 환관 유승해를 죽이려는 반대 상소를 올렸다. 회남절도사로 좌천될 위기를 헤쳐나간 배도의 재물을 내쳐서다. 변진 토벌에 위기감을 느낀 처형될

당후기 명재상, 헌종 사당에 배향

도사 이사도가 강경파인 재상 무원형과 배도의 암살에 나섰다. 무원형을 죽이는데 성공했으나 배도는 도랑으로 굴러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구했다. 건강을 회복한 배도는 재상으로 임명돼 위박진, 장흥정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다.

회서 전투가 4년여를 끌고 9만 병사를 투입했으나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 국고는 바닥나고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전투를 계속해야할지 조정의 의견이 분분했다. 재상 이봉길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량미도 바닥났으니 퇴각을 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며 철군을 주장했다. 배도는 본인이 직접 전선에 가서 전투를 지휘하겠다고 주장했다. 말하기를 “신이 맹세하건대 이 도적들과는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오원제의 형세가 공색한데 장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항복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직접 가게 되면 반드시 다투어 나아가서 도적을 격파할 것입니다” 문하시랑·동평장사 겸 청의절도사가 되었다. 명장 이소의 활약에 힘입어 817년 10월 오원제를 생포했다. 819년 처형절도사 이사도가 부하에게 암살되자 처형 12개 주에 회복하였다. 배도가 처형 승리의 주역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임금이 곤란해졌다. 결국 4월 하동절도사로 임명

이 되어 원진과 함께 정사를 돌보게 되었다. “우방이라는 자가 원진의 사주를 받아 배도를 해하려 한다”는 투서가 조정에 올라왔다. 조사 끝에 원진이 장난친 것이 들어나 동주자사로 좌천시키고 배도도 우복야로 옮겼다. 이봉길은 재상으로 전횡을 휘두르자 산남서도절도사로 내려갔다.

824년 정월 목종이 금단약의 후유증으로 죽고 경종이 즉위했다. 12월 동평장사의 직위를 회복했다. 이봉길은 배도의 조정 복귀를 막기 위해 배도의 부하인 무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봉길의 무리수가 들어나면서 배도를 재상으로 임명하고 사공으로 승진시켰다. 이봉길은 825년 8월 산남동도절도사로 좌천되었다. 경종이 환관에게 암살되고 문종이 즉위했다. 830년 사도로 승진하고 재상 겸 평장군국중사의 명예를 얻었다. 3-5일에 한번씩 일해되는 예우였다. 835년 감로의 변이 일어났다. 환관을 제거하기 위해 이혼 등이 일으킨 군중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수백명의 중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관용조치를 건의해 십여가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중서령을 끝으로 관직생활을 마무리했다. 841년 태사로 추증되었고 헌종의 사당에 배향되었다.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